

##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요한복음 13: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2014년이 저물어가고 2015년이 오려고 하고 있다. 세월은 강물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세월의 빠른 흐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성도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저는 이 시간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가?

### 성도의 과거

첫째로, 성도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씻음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른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3여년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식사시간에 저녁 잠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 말했다. “주여, 주께서 내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의 하는 일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말했다. “내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너

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말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를 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을 목욕한 자라고 표현하셨다. 그것은 죄씻음을 받은 것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중생을 의미한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 밤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말씀하셨다(요 15:3).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죄씻음을 받았다.

그러나 목욕한 자도 손과 발을 시시때때로 씻어야 한다. 중생한 자, 곧 예수님 믿는 자들도 시시때때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나아가 자신의 죄와 실수와 부족을 고백하고 씻음받아야 한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날마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즉 중생한 자는 다시 중생할 필요가 없다. 중생한 새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죄씻음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는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았다. 복음 신앙, 속죄 신앙은 구원 신앙이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다 목욕을 해야 한다. 복음 신앙, 속죄 신앙을 가져야 목욕을 할 수 있다. 믿는 자만 죄씻음을 받는다.

물론,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된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

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 3:5).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8-9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구원받은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중생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 성도의 현재

둘째로, 성도의 현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명 곧 성경의 모든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25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시면서,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의식주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섭리자이시다. 그는 모든 생물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며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류를 돌아보신다. 그는 특히 자기 백성된 자들을 돌아보신다. 그는 만세 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할 곳을 아시고 그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명 곧 성경의 모든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이루신 의이며 또 그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고 성경의 모든 교훈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며, 또 성수주일을 해야 한다. 또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곧 성경의 모든 교훈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거슬러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또 성도는 소득의 십일조 이상을 하나님께 바친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시대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구약보다 위축된 방식으로가 아니고 구약보다 더 풍성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즉 신약시대에는 7일 모두가 하나님의 날이며 나의 물질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성도는 7일 중 하루 이상을 거룩히 구별하여 교회로 모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소득의 십분의 일 이상을 즐거이 헌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연약성과 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성화 생활의 성장은 매우 미미하고 더디다. 우리는 자주 실패를 경험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다.

로마서 8:28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우리의 지식과 믿음

의 성장과 우리의 인격의 성화를 이룬다. 또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대체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육신적 평안과 유익도 줄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가 되었고 성경의 모든 교훈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성경의 모든 교훈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낙망치 않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고(딤후 4:7)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

### 성도의 미래

셋째로, 성도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한다. 1:7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기록한다. 그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한다. 또 그 본문은 “그러하리라. 아멘”이라는 말로 주의 재림이 확실한 사건일 것을 강조한다.

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끝난다. 22:20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한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 음성을 증거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증거한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되다. 그의 약속은 참되다. 특히 그는 ‘진실로’라는 말을 더하셔서 그의 약속을 강화하셨다.

그때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전통본문)라고 대답하였다. 신약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의 가장 복된 소망이다. 주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복잡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가 오시면 모든 일이 정리될 것이다. 모든 복잡한 일들이 끝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로 나뉠 것이다. 복된 천국과 두려운 지옥이 모두 앞에 펼쳐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던지울 것이나,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은 복된 부활체를 얻을 것이며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이러하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성도의 과거이다. 또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명 곧 성경의 모든 교훈을 순종한다. 이것이 성도의 현재이다. 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복된 천국과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도의 미래이다.

이제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이신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씻음을 받으셨는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명들 곧 성경의 모든 교훈에 순종하고 있으신가? 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도가 확실한지 이 시간 자신을 점검해보고 성경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주의 재림 소망을 굳게 하자.